

# 데살로니가 후서

AN EXPOSITION ON THE  
APOSTLE PAUL'S SECOND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김호성 목사

Pastor Hyo 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time Faith

2017



##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마 5:18; 요 10:35; 갈 3:16; 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진술대로(1:8), 성경 원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 본문은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웨스트코트와 호트가 주장한 불확실한 가설에 의해 많은 교회들이 신약성경의 전통적 다수 본문을 버리고 불완전하고 오류투성이의 사본들(X와 B)을 중시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헬라이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은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중세 시대 말, 종교개혁 직전과 같이, 오늘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 내용 목차

서론 .....	5
1장: 재림의 엄위성 .....	6
2장: 재림의 징조 .....	16
3장: 재림 신앙의 균형 .....	28

## 서론

데살로니가후서의 **저자**도 바울이다(1:1; 3:17). 디다케는 본서를 인용하였고 터툴리안도 본서를 사도의 서신으로 인용하였다. 이레니우스는 본서를 처음으로 바울의 서신으로 언급하였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51년경일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 나타난 데살로니가교회의 상태가 비슷하고 실라와 디모테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살후 1:1) 등을 고려할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지 몇 달이 되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와 같이, 데살로니가후서의 **특징적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본 서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이 증거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재림의 엄위성

2장, 재림의 징조

3장, 재림 신앙의 균형

본서는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실 것이며 이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임을 증거한다.

본서는 또 재림의 징조로 ① 배도[배교, apostasy](교회의 전체적 타락과 변절), ② 불법의 사람(독재적 정치가 혹은 국가)이 나타남을 든다. 본서는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치우치지 말고 일상생활에도 충실해야 함을 교훈한다.

# 1장: 재림의 엄위성

## 1-4절, 바울의 기원과 감사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이다(행 15:22).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로서 그 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행 17:14; 18:5; 19:22; 20:4).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설립되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세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2, 3절). 그들의 전도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4절).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창조자의 의미이다. 이사야 64:8,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둘째는 구원자의 의미이다. 신명기 32:6,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사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야고보서 1:18, “그가 그 조물(造物)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셋째는 보호자, 양육자, 공급자의 의미이다. 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인다. 여기에 성도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도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한 가족이며 식구들이다.

신약성경에서 주로 예수께 사용된 ‘주’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의미로 667회 사용되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헬라어 70인역에서 ‘주’라고 번역되었다. ‘주’라는 단어는 온 세상의 주인, 왕, 통치자, 주관자, 즉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크신 하나님’(딤후 2:10), ‘참 하나님’이시다(요일 5:20).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구원이 연합의 관계임을 나타낸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였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구원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교회의 놀라운 행복이며 존귀한 특권이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 매번 나오는 의미심장한 인사말이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가리킨다. 그것은 죄사함과 중생(重生)과 칭의(稱義) 뿐만 아니라, 계속적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평안’은 죄사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비롯하여,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및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한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

1) Byz ✠ A vg syr<sup>p</sup> cop<sup>sa-mss</sup> arm Origen<sup>lat</sup> 등에 있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었다. ‘더욱 자란다’는 원어(휘페르아욱사노 ὑπεραυξάνω)는 ‘크게 자란다’는 뜻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또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단지 신비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포함한다. 또 ‘너희 믿음’이라는 말은 모든 교인들의 믿음을 가리킨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마 13장). 땅에 심긴 씨는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믿음도 자란다. 어린 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 힘들지만, 다 자란 나무는 강한 바람도 잘 견디어 낸다. 그것은 깊이 내린 뿌리와 굵어진 가지 때문이다. 믿음도 성경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으로 단련되면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된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3:6-7,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전의 건립 혹은 교회의 건립으로 표현된다. 성전의 건립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슥 4:6). 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물론 인간편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롬 10:17; 눅 1:1-4).

두 번째 감사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풍성하게 실천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 표현된



다. 사랑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히 10:24-25). 또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 초기 예루살렘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였다(행 2:44-45). 구제는 사랑의 구체적 행위이다.

**[4절] 그리고(호스테 ωστε)[그래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그들을 자랑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받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딤후 3:12). 환난의 때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계 13:10; 14:2). 주께서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후 4:17).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참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며 받아 누리자.

둘째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도하자.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우리편에서도 성경 읽기와 기도, 교회의 공적 모임, 순종 등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자.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심방하고 위로 격려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의 행복과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잘 견디어야 한다.

## 5-9절, 재림과 심판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참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도의 바른 신앙고백과 그의 신앙고백에 일치하는 의로운 삶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일차적 증거이지만, 그가 핍박 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귀한 증거인 것이다.

**[6-9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sup>2)</sup>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원문)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그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의롭고 선한 행위에 대해 상주시고 불의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 벌하실 것이다(롬 2:6-8). 그는 자기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으로 갚으실 것이며 고통받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보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로 사용하실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다.

---

2) Byz<sup>l</sup> & A TR 등에 있음.

‘하늘’은 장소적 의미를 가진다. 하늘은 그가 지금 계신 곳이다.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오른 편에 앉아계신다(막 16:19; 눅 24:51). 그는 거기로부터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두 단어는 ‘강림’(파루시아 παρουσία)과 ‘나타나심’(아포칼립시스 ἀποκάλυψις)인데, 본절에서는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불꽃 중에’라는 말은 ‘형벌을 주시리니’라는 어귀에 연결시키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주의 재림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다.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이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므로 우상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한다(잠 9:10). 또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7:3).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대속(代贖)의 진리가 들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다(고전 1:23; 15:3). 이 복음을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께서는 악인들에게 불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했다(벧후 3:6-7).

바울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라고 말한다. ‘떠나’라는 원어(아포 ἀπό)는 근원의 뜻도 있고(KJV) 분리의 뜻도 있다(NASB).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얼굴과 심판의 능력과 영광으로 악인들을 향하실 것이며, 또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고 성도들을 부활시킬 그의 힘의 영광을 체험치 못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 형벌을 가리킨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한 마지막 형벌의 장소이다. 마태복음 25:41, 46,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永罰)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것은 구원의 표가 될 것이다.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 (요 17:3)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사역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물론, 그를 믿는 자는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교훈을 힘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주의 재림 때에 주실 영광을 믿고 바라면서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 바른 신앙고백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차적 표이지만,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디는 것은 바른 신앙고백과 순종보다 더 확실하고 귀한 표이다.

셋째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에 있을 공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재림의 주께서는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밝히 구별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곧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운 심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자.

## 10-12절, 재림과 영광

[10절]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자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주를 보지 못하고 믿었던 모든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실상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며, 더욱이, 재림의 주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믿었다는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의 내용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엡 2:8-9).

[11-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체에 관계된다고 본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되어 그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

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주님을 영광과 찬송과 놀라움 가운데 영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주의 재림이 이런 일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의 확실함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과 목적은 몇 가지이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성도의 표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이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원어(과산 유도키안 아가도쉬네스  $\pi\acute{\alpha}\sigma\alpha\nu\ \epsilon\upsilon\delta\omicron\kappa\iota\alpha\nu\ \acute{\alpha}\gamma\alpha\theta\omega\sigma\acute{\upsilon}\nu\eta\varsigma$ )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의미하든지(KJV), ‘선한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원’(NASB)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의 뜻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 구원을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은 선한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원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심이다.

‘믿음의 일’은 믿음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것은 살아서 활동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믿음과 구원을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한 모든 소원과 믿음의

행위를 다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가능하다.

셋째로,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며(히 2:3) 완전한 구원이며(히 10:14) 영광스러운 구원이다(롬 8:30). 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영육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날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는 표를 가지자.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표이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닐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모든 선을 소원하며 실천하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케 하신 자들은 그 구원의 뜻대로 죄를 멀리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고 모든 선을 소원하며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자.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그 날에 재림하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며 누릴 것이다.

## 2장: 재림의 징조

### 1-8절, 재림 직전의 두 가지 징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그리스도]<sup>3)</sup>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30-31절).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나, 혹은 자기에게서 받았다 하는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도 그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었다(마 24장).

[3-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아무도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背道)[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죄]<sup>4)</sup>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sup>5)</sup>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3) Byz 본문임. 그러나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은 ‘주’라고 되어 있음.

4) Byz A it<sup>d</sup> vg syr<sup>p</sup> Irenaeus<sup>lat</sup> Origen<sup>gr-6/7 lat</sup> Tertullian 등이 그러함.

5) Byz syr<sup>p</sup> Irenaeus<sup>arm</sup> 등이 그러함.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 중에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배교(背敎)이며, 둘째는 죄의 사람이 나타남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요동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첫 번째 징조는 배교이다. ‘배교’라는 원어(헤 아포스타시아 ἡ ἀποστασία)는 ‘그 배교’라는 말로서 최종적, 절정적 배교를 암시한다. 배교(apostasy)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역사상 교회가 바른 믿음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다. 중세 천년은 신앙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 직전에 천주교회는 매우 심각한 배교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배교한 단체라고 보았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개신교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온 세계의 교회들 속에서 다시 배교가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백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회는 또다시 배교의 상태에 떨어져 있다. 이것은 교회역사상 없었던 극히 심각한 배교이다. 세계 개신교회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오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신성(神性), 기적들, 대속(代贖), 부활, 재림을 부정한다. 세계의 대다수의 개신교단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를 고의적으로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의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포용주의적 입장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에게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이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죄의 사람’은 심히 부도덕한 자를 가리킨다. 그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자이다. 그는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멸망의 아들’로 표현된다. 또 그는 ‘대적하는 자’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복음 진리와 참된 교회들을 대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자(계 13:6-7)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그는 악한 정치가나 악한 나라일 것이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시킬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 국가일 것이다. 다시 한번 세계는 인간 숭배의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5-7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의 사람이 나타나 공공연하게 행할 불법에 비교해 볼 때 아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의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많은 죄의 사람들이 있었다. 옛날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들로부터 현대의 히틀러나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불법의 활동들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 절정적 인물인 그 죄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아직 그의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다. 그는 성령이실 것이다. 그는 저 예언된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막는 일을 놓으시면 그 죄의 사람, 즉 악한 독재자나 독재적

국가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나 저 불법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있을 것이다. 재림의 주께서는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 불법자를 죽이시고 그를 폐하실 것이다. ‘나타나심’이라는 원어(에피파네이아 ἐπιφάνεια)는 ‘광채’라는 뜻이 있다. 밤이 깊을 때 여명이 밝아오듯이, 배교와 불법이 극심하게 될 때 주께서 밝은 빛 가운데 오실 것이다. 기독교계는 장차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연합이 있을 것 같다. 개신교회의 세계적 협의체인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로마 천주교회(RCC)는 어느 날 연합할 것이다. 그때 교황은 다시 온 세계 교회를 지배하는 종교지도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온 세계가 강력한 독재자 혹은 독재 국가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아마 공산주의 독재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악한 종교지도자나 독재자를 멸하실 것이다(계 19:19-21).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동시에, 날마다 평안 중에 성실히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징조들을 기억해야 하며 특히 배교하는 일과 죄의 사람의 나타남을 기억해야 한다. 배교의 징조는 천주교회나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또 죄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나, 아마 강력한 공산주의 독재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주시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께서 악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다 죽이시고 폐하실 것을 알자. 재림의 징조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는 믿음에 서서 순종하는 자가 되자.

## 9-12절, 사탄의 속임

본문은 불법한 자의 활동에 대해 좀더 증거하고 있다.

[9-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의’라는 원어(후 οὗ)는 ‘그의’라는 말(관계대명사)로서 8절의 ‘불법한 자’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불법한 자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한다.

첫째로,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은 사탄이다. 그는 사탄의 역사(役事)를 따라 올 것이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라 살았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엡 2:2).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요일 5:19).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곧 사탄은 짐승 곧 불법한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계 13:1-2).

둘째로, 불법한 자의 활동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임이다. 그는 우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행할 것이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7:22-23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마태복음 24:24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요한계시록 13:13, 15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을 예언하였다: “큰 이적

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는 오늘날 은사운동을 주목하고 그것이 불법한 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은사 체험을 구하지 말고 성경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불법한 자는 또한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행할 것이다. 그는 불의로 충만한 자요 담대히 불의를 행하는 자일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의와 양심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는 속임에 능수능란할 것이다. 그와 대화하고 그와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공산세계의 불의와 속임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로, 불법한 자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구원 얻는 자들이고,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이다. 구원 얻는 자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救贖)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이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장차 나타날 저 불법한 자는 단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할 것이다.

넷째로, 불법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

심이니라.” 요한일서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한 자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11-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새[하나님께서 속임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주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 불법한 자에게 속아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섭리 가운데 허용하실 것이다. 진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 그것이 옛신앙이다. 우리는 그 옛신앙, 성경적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한다. 그 신앙은 개혁신학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성경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따를 것이다. 거짓 것이란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속화된 기독교,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독교이다. 오늘날의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지키지 않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거나 포용하고 우상숭배적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종교들을 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심히 두렵게도, 이것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표를 상실하고 멸망하는 표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종들과 성도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거센 말세의 배교의 물결을 거슬러 역사적 기독교를 지켜야 한다.

멸망하는 자들은 또한 불의를 좋아한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간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한다. 불신앙, 배교, 자유

주의, 신앙적 변질과 해이 등은 불의, 탐욕, 음행, 포용주의, 타협 등 윤리적 부패와 해이로 나아간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죄이며 멸망이다. 우리는 오늘 시대의 이런 풍조를 조심해야 한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과 방법, 대상과 이유에 대하여 증거한다. 불법한 자의 활동은 사탄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그 방법은 거짓된 기적과 불의와 속임이며, 그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된 기독교 운동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이비한 기독교 운동들이 많다. 우리는 역사 깊은 이단인 천주교회, 또 특히 19세기 중반에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각종 이단종파들, 또 20세기 초부터 퍼져나간 자유주의 신학, 타협적 복음주의, 각종 은사운동 등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진리에 대해 충실하지 않다. 그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근본 원리들을 저버리고 있다. 천주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이 포용되고 은사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들은 다 말세의 징조들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풍조를 분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이다. 우리는 바른 교리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또 개혁신학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의 교리적 내용을 잘 정립한 사상 체계이다. 그것이 옛신앙이다. 우리는 또한 윤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한다. 바른 믿음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며 또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깨어 있고 역사적 기독교 진리를 다 믿고 복된 개혁신앙을 지키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참된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다.

### 13-17절, 성경적 교훈을 지키라

[13-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표에 대해 증거하였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원을 둔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즉 창세 전에(엡 1:4)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훈의 선택이다. 로마서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훈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로,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요 3:5). 사도 바울은 디도서 3:4-5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훈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했다.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이었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구원은 진리 곧 ‘구원의 복음’(엡 1:13)을 믿음으로 얻는다. 그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소식이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셋째로, 구원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가리킨다. 로마서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행복이다. 하나님의 선택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복음 진리를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도, 마침내 받게 될 부활의 영광도 다 놀라운 복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15절] 이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

‘이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라는 뜻이다. 성도들의 성화(聖化) 생활을 위한 모든 교훈과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구원과 약속된 영광에 대해 그들편에서 마땅히 응답하고 행해야 할 바인 것이다.

우리는 받은 구원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자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다. 누가복음 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

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적 유전(遺傳), 곧 전해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 ‘말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교훈이고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사도들의 간접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도적 교훈은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개혁신학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이며 옛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 진리와 모든 복음적 교훈들은 불변적이고 영원하다. ‘이신칭의’(以信稱義)로 표현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누가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갈 1:8-9). 또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전달된 종말 계시와 예언에 무엇을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계 22:18-19).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이 역사적 기독교, 개혁신학, 옛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보수신앙의 본질이다. 기독교는 새 것을 만들어 내는 종교가 아니고 옛 것을 지키는 종교이다. 우리는 이 옛신앙을 귀히 여기며 보수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이탈한 인간의 모든 전통들을 버려야 하고 성경을 떠난 모든 종류의 이단을 용납하지 말고 배격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사도적,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만을 믿고 보수해야 한다.

**[16-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곧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이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 같고 인생의 행로는 수고와 고생이 가득하며 우리는 시시때때로 위로가 필요하다. 삶의 현실 속에서 불안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한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기원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목표는 선한 생활이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선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만세 전의 선택에 근거하고 현재의 변화된 삶과 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또 복음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둘째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성경적 교훈, 개혁신학, 옛신앙을 확신하고 보수하자. 특히, 이 시대에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수적 교회와 보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바로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개혁신학의 귀한 유산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적 교훈, 즉 전통적, 정통적 바른 교훈을 확인하고 지키자.

셋째로, 우리는 항상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마다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선한 말과 행위에 굳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날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게 서서 모든 선한 말과 행위를 실천하자. 이것이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 3장: 재림 신앙의 균형

### 1-5절, 기도의 교통

[1-2절]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나, 성도들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원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이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 능력의 말씀이었다(살전 1:5). 이제 그는 그 동일한 말씀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다. ‘달음질하다’는 원어(트레코 τρέχω)는 ‘자유로이 혹은 빠르게 전진한다’는 뜻이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말씀의 힘있는 역사, 그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말씀의 일꾼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 일행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것이었다. ‘무리하다’는 원어(안토포스 ἄτοπος)는 ‘이성과 양심을 저버리다, 악하다’는 뜻을 가진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하기를 원해서이었을 것이다. 주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도의 직무가 악한 자들에 의해 방해로 받아서는 안 되었다. 바울은 그 직무를 완수하기를 원하고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그를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요 6:66).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날을 정하고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행 28:24). 심지어 지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자가 아니면 어느 날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13).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방해나 꾀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바이었고 사도들이 행한 바이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0:14). 사도행전 18:6-7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을 때 바울은 옷을 떨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비록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들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또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3-4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너희가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행할 줄을]6)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주께서 미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다. ‘미쁘다’는 말(피스토스 πιστός)은 ‘신실하다’는 뜻이다. ‘굳게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견고함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과 견고함은 다 신실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증거하였다(빌 1:6). 또 히브리서 12:2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였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말에서, ‘악한 자에게서’라는 원어(안포 투 포네루 ἀπὸ τοῦ πονηροῦ)는 ‘악으로부터’(KJV)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신다.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잠시 연약에 떨어질지라도 주께서는 즉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 연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그 연약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다.

---

6) Byz (B) vg (cop<sup>sa</sup>) 등이 그러함.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가 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은 그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확신이었다. 즉 그는 신실하신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혹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실 것을 확신한 것이다. 사도들의 명령과 교훈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순종케 하실 것이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 6:5). 잠언 4:23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헛된 데 두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사랑과 그가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사랑을 다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했다(요일 4:9-1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인내와 또 우리 속에 주시는 인내를 다 가리킬 것이다. 예수 그리

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또 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참게 도우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덕이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힘있게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저도 여러분에게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힘있게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성경의 바른 교훈을 순종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자. 우리의 구원은 죄성과 연약성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한 인간 목사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끊임 없이 기도하자. 우리는 주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은 기도하지 않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도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성도의 믿음이 주위에 힘있게 전파되고 굳세어지는 것은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이다. 목사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을 위한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강건함과 순종과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자.



## 6-18절, 무질서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하기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한다. ‘명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보다 강한 뜻이다. 권면도 순종해야 하지만, 명령은 더욱 순종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이 명령을 인간 바울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것임을 보인다.

‘규모 없이’라는 원어(아탁토스 ἀτάκτως)는 ‘무질서하게’라는 뜻이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유전’(遺傳)이라는 말(파라도시스 παράδοσις)은 ‘받은 교훈’을 가리킨다. 그것은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포함한다. 바울은 2:15에서도 그들이 받은 교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오늘날 신약성경은 사도적 유전 즉 사도들이 교훈한 내용이다. 성경의 교훈을 순종치 않는 것이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고 단지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사도의 교훈을 순종치 않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고의적 불순종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떠나라’는 말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어떤 형제가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진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권면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물론, 이것은 일차적으로 교회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한두 명의 형제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분립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헌법의 규정대로, 교회는 잘못을 행하는 자를 권면, 책망하고, 성찬 교제에서 제외하고, 끝으로 제명, 출교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 순서이다. 칼빈의 말대로, 권징은 교회의 힘줄과 같다. 교회가 권징을 성실히 행할 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지만, 교회가 바른 권징을 포기하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권징을 포기한 교회는, 비록 그 교회에 교인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할지라도, 진리의 수호자와 전파자로서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적일 때도 있다.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하고 변질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안에는 진실한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서서히 타락할 수 있다. 물론, 진실한 성도들이 깨어 있지만 하면 그들은 교회의 타락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배교적이었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매우 소수이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16세기 종교개혁 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배교적이고 해이해져 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 대교단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되었고 불신실하고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성경적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제의 문제이다.

[7-9절] [이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니니 [얕임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도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엄숙한 명령을 위해 자신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수고하고 일하였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이었고 그는 친히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교회들과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가급적 받지 않으려 하였다. 그것은 그가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연약한 교인들의 믿음에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었다.

바울의 모범은 목사가 세상 일을 하고 교회의 사례를 받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로 생활하도록 정하셨다. 또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물질의 십일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했다. 십일조 헌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비로 쓰였다. 그것이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과 목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뜻하셨다. 고린도전서 9: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디모테전서 5:17-1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렸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목사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생각지 말고 감사히 받고, 또 교회와 교인들은 그들에게 의식주와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 적절한 비용을 드려야 할 것이다.

바울의 모범은 단지 목사들이 전도 활동이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처신해야 함을 보인다. 목사는 물질에 대해 초연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목사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자이어야 하고 그 고귀한 진리를 세상의 물질과 바꾸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중용히[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도 힘든 일은 못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청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무슨 일이나 죄 아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떳떳한 일이다.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 ‘일만 만드는 자들’(페리에르가조메노이 περιεργαζόμενοι)이라는 원어는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자기 일은 성실히 하지 않고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남의 집은 자주 방문하지 말고 남에게 쓸데없이 자주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나타나 남의 일이나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히, 성실하게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13-15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

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그를 지목하고 교제를 단절하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한 태도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와 교제하고 그를 인정하면 그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와 교제를 끊는다면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버려두면, 교회의 기강이 흐려지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잘 될 것이다. 그가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와의 교제를 끊고 그를 책망함으로써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성결성을 지키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한다.

[16-18절] 평강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이다. [아멘.]<sup>7)</sup>

하나님께서서는 ‘평안의 주’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하였다. ‘일마다’라는 원어(엔 판티 트로포 *év παντί τρόπω*)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이다. 평안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

---

7) Byz A D it<sup>d</sup> vg syr<sup>p</sup> cop<sup>bo</sup> arm eth geo 등에 있음.

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할 것이다.

‘편지마다 표적이기로’라는 말은 편지가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편지마다의 표시’라는 뜻이다. 바울은 다른 이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한 후에 편지 끝에 친필로 ‘바울’(파울로스 Παῦλος)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그가 쓴 편지임을 표시했던 것 같다.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이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즉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교훈 즉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그런 자들이 교리적으로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여기라고 했다.

특히 이 말씀을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교훈하는 바가 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우리와 같이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과 교제하지 말고 배격하라는 성경의 명백한 교훈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 기독교계는 16세기 종교개혁시대와 같이 다시 어두워진 배교적 시대이다. 우리는 배교와 타협하는 신복음주의가 속히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램에 불과하고 신복음주의는 오늘날 유행하고 인기 있는 입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우리의 형제들이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인품에 있어서 좋은 점들이 있을지라도,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고, 만일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지만, 우리는 또 본문의 내용 그대로 ‘일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

## 데살로니가후서 강해

---

2000년 7월 30일 초판

2017년 12월 28일 수정

저 자 김 호 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http://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oldfaith.net](mailto:oldfaith@oldfaith.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

ISBN 978-89-98821- -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1, 2**. 878, 1001쪽. 각 26,000원 (보급가 10,000원)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제2판]. 1014쪽. 26,000원 (보급가 11,000원)
-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63쪽. 무료.
- 김효성, **레위기 강해**. 189쪽. 무료.
- 김효성, **민수기 강해**. 212쪽. 무료.
- 김효성, **신명기 강해**. 241쪽. 무료.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98쪽. 무료.
- 김효성, **열왕기 강해**. 271쪽. 무료.
- 김효성, **역대기 강해**. 286쪽. 무료.
- 김효성, **욥기 강해**. 211쪽. 무료.
- 김효성, **전도서 강해**. 86쪽. 무료.
- 김효성, **아가서 강해**. [제2판]. 87쪽. 무료.
- 김효성, **이사야 강해**. 496쪽. 무료.
-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435쪽. 무료.
-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360쪽. 무료.
-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378쪽. 6,100원 (보급가 3,000원).
-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223쪽. 4,000원 (보급가 2,000원).
-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281쪽. 6,000원 (보급가 3,000원).
- 김효성, **조직신학**. 604쪽. 6,000원.
-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제9판]. 96쪽. 2,000원 (보급가 1,000원).
- 김효성, **기독교 윤리**. [제5판]. 234쪽. 4,000원 (보급가 2,000원).
-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제7판]. 34쪽. 600원.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판]. 108쪽. 1,200원.
- 김효성 역,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 [제7판]. 48쪽. 500원.
-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171쪽. 6,000원 (보급가 1,600원).
-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보급가 1,700원).
-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보급가 1,200원).
-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제2판]. 80쪽. 900원.
- 김효성, **이단종파들**. [제6판]. 70쪽. 700원.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무료.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fdc.net

★ 계좌: 농협 302-0401-6652-61 김효성.

★ 파일내려받기: <http://www.cps2014.net/00download.htm>

\*\*보급가는 인쇄비이며 문서헌금입니다.